



6월이 오는 길목



李興周
〈環境廳 公報官〉

(I)

6월은 우리가 自然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季節이다.

6월은 우리가 自然을 가장 마음껏 享有할 수 있는 季節이다.

한아름 그윽한 꽃향기와 5월의 新錄에 비하면 훨씬 질푸른 6월의 盛錄은 한층 더 우리를 自然의 품속에 머무르게 한다.

아름다운 季節, 6월이 오는 길목.

그 길목에는 꽃향기, 벌과 나비, 그리고 사랑의 根源을 이루는 天惠의 아름다움이 있다.

산을 찾는 길목에는 푸르름이, 江을 찾는 길목에는 맑음이 우리의 삶을 潤澤하게 하며 生活苦와 번뇌에 退色되어가는 人間의 情을 되살려 주며 우리의 아름다운 本心을 되살려 준다.

아름다운 大自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惠澤은 바로 人間性의 回復이 아닌가 한다.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季節, 自然의 모든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季節이 오고있다.

조그마한 우리의 愛情어린 손길 한번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의 山河.

우리의 노력어린 손길 한번으로 더욱 快適하게 保全될 우리 주위의 環境.

6월이 오는 길목.

누구나 善하게 하는 길목. 이 길목을 -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길목- 맞는 5월의 끝에서 生覺되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

(II)

옛 先人들께서는 “灑掃應對 進退之節” 이라 하여 물뿌리고 닦으며 나가고 들어감을 분명히 하는 것을 生活의 規範으로 삼았다.

자신 스스로의 주변부터 깨끗하게 정돈하던 先人들의 生活자세가 금번 6월이 오는 길목에서 는 우리 모두에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갈고 닦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효용가치가 높은 環境을 갖는 그런 季節이 되었으면 좋겠다.

自然禮讚

자연을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讚美할 수 있는 것은 環境을 아끼고 가꾼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일 것이다.

한철이 지나면 아름다운 大自然에 人間의 때가 한결 더 쌓이는 악순환의 되풀이가 아닌 보다 가꾸어진 環境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진정으로 아쉽다.

밀알을 뿌리는 農者의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父母의 마음으로 먼 장래를 내다 보며 우리가 맡은 각 分野에서 所重한 環境을 지키기 위해 最善을 다해 나가자.

(Ⅲ)

英國의 테임즈江에는 英國國民의 自尊心이 흐른다고 한다.

그 연유를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단순한 물의 흐름이지만, 産業革命 이후 汚染되기 시작한 테임즈江이 물고기도 살 수 없을 정도로 汚染되었을 때 그 江을 살리기 위한 英國國民 모두의 노력이 結集되어 이룩한 意志의 產物, 그것이 지금 맑은 테임즈江의 흐름이며 바로 英國國民自尊心의 도도한 흐름인 것이다.

독일의 라인江에는 로렐라이의 傳說이 흐르고 프랑스의 세느江에는 연인들의 속삭임이 흐른다.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環境이 있기에 傳說이 흐르고 사랑이 흐른다.

맑고 快適한 環境아래 健康한 國民性이 키워지며 우리가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 環境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當위성이 여기에 있다.

굽이쳐 흐르는 漢江에는 천년전 탄금대에 은거한 우륵선생의 가야금 소리가 흐르며, 중부지방

의 곡창지대를 지켜온 錦江에는 고란초의 香氣와 삼천궁녀 忠節의 냇이 흐르도록 우리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민족의 얼을 간직한 채 도도히 흐르는 강물, 그것은 단순한 물의 흐름의 意味만이 아니다.

山寺 그윽한 香氣와 千年古城의 잔해를 휘감아도는 바람은 단지 공기의 흐름만은 아니다.

우리 다같이 6월이 열리는 길목, 5월의 끝에서 겹쳐서 環境을 생각해야 되겠다.

단순한 汚染問題를 떠나 快適한 環境의 파괴는 人間性과 國民性마저 메마르게 한다.

廢水가 흐르는 河川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詩心을 기대할 것이며 혼탁한 공기속에서 맑은 노래를 부를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Ⅳ)

自然은 거짓이 없다.

우리가 가꾼대로 그 惠澤을 되돌려 준다.

우리가 누리는 環境의 惠澤만큼 우리도 環境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義務가 있다.

環境은 내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環境의 公概念導入이 시급한 時機이다.

내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

조상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遺産을 우리 모두가 精誠을 다해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環境속에 健康한 發展이 있다.

6월이 다가오는 季節의 길목, 5월의 끝에서 우리 다같이 環境保全을 다짐해보자.

아직 내주변은 조금 덜 汚染되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자.

盛錄의 푸르름이 한 잎의 새순부터 이루어졌듯이 내주변 環境부터 保全하여 맑고 快適한 山河를 이룩해 보자. *

부탁안해 몇몇하고 받지않아 깨끗하다.